주제2

채무자조직 지원 및 사회적 수용에 관한 주제

희년빚탕감상담소

(禧年債務蕩減相談所)

소장 김철호 목사

1.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한국 IMF 외환위기와 폐해

한국사회에서 금융피해자운동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태동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21세기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외환위기로부터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일자리와 집과 소유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 앉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용카드와 대출 등 금융 채무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 그렇게 수많은 금융채무자들이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렸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한국의 민생.노동.인권 활동가들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소외계층의 금융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빚 탕감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사회.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한국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자본들에게 한국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는'21세기 지구촌 금융화 체계'속으로 편입되었다. 21세기 한국의 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유사자본가'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당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실제로 2024년 12월말 한국의 경제 활동인구(약2800만) 가운데 1,432만 명이'주식'을
소유하였다. 그 중에 1,410만명(99.1%)이 개인 투자자다. 더불어 코인(가상화폐)투자자수는
'적게 잡아 700만 명, 많게는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특수고용, 프리랜서,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수도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상생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21세기 한국인들은'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21세기 일상생활의 금융화가'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하루하루의 모든 쓰임과 필요를 오롯이 금융시스템에 의지하거나 관리하도록'내맡긴다. 이렇듯이 지구촌 나라들마다'일상생활의 금융화'가 크고 넓게 그 터를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21세기 금융화'이야말로 '중세유럽의 고리대금업과 약탈경제로의 회귀'라고 개탄한다.
또 영국의 경제 지리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는 '21세기 지구촌은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증언한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

'빚진 죄인'을 거부하다. 희년빚탕감상담소(禧年債務蕩減相談所 이하 희년)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넘게 한국사회에서'**빚진 죄인, 참이 아니다**'라고 외쳐왔다. 희년빚탕감운동(禧年債務蕩減運動)을 통하여'빚진 죄인이라는 사회.경제 인식'을 거부해 왔다. 이렇게 희년의'빚진 죄인 거부운동'의 밑바탕은'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지구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빚진 죄인'자체를 거부한다. 너나없이'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낸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증언'

21세기 지구촌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시대 상황에서'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은'법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법원은'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법률'을 근거로 '빚진 죄인을 거부'한다. 한국법원은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금융채무자의 삶의 상황을'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심리(審理)'한다. 한국법원은 금융채무자들의 생활경제 파산상태를 확인한 후'파산 및 면책을 선고'한다

한국법원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누계 (년/명)

년도	2003	2007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파산	3,856	154,039	50,379	49,063	41,463	41,239	40,104
개인회생	0	51,416	86,551	81,030	89,966	121,017	129,498
합계	3,856	205,455	136,930	130,093	131,429	162,256	169,60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21세기 금융시스템의 증언'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은'21세기 금융시스템'을 통해서도 외쳐진다.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의 실체는 다음과 같이 '숫자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24년 12월말 본원통화(현금통화182.67조 + 은행시재금 + 지급준비예치금)283.48조원이 × 통화승수 약14.675배의 속도로 돌고 돌아서 = 신용통화(빚)4,160.35조원을 만들었다."** 이처럼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 속에서'모든 돈 또는 부와 자산들'은 누군가의'빚'이다. 이 빚을 숫자로 표현하면 **'2024년 12월말 가계부채 1,927,3조 + 자영업자부채 1,123.8조 = 실제 가계부채 3051.1조원'**이다. 이때 모든 빚(돈)은'이자와 이윤을 통해서' 돌고 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은행은'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화폐'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사회.경제 속에서 모든 부와 자산들은'누군가의 호주머니 속 화폐를 이자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독점하고 쌓은 것'이다.

한마디로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 속에서 모든 금융채무자들은'금융피해자'이다.

3. 한국 금융피해자 운동의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새벽(이하 '새벽') 활동

'**새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광역도시 가운데 하나인 '대전'에서 금융피해자 운동을 시작했다. 새벽은 '금융피해 당사자와 활동가 그리고 법률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는 연대조직이다. **새벽**은 '개인파산면책은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라는 모토(motto)로 활동한다.

통합상담 활동 : 민생(民生)을 협동(協同)하다.

새벽은 금융피해자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한다
(채무종합상담 → 서류발급안내 → 법원소송서류 만들기 → 법원소송접수→ 파산면책결정까지)
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단체들과의 소통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피해 당사자에게 맞는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복지권리 찾기'를 안내한다.
나아가 '금융채무와 관련한 모든 생활법률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더해서'21세기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폐해'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교육활동 : 나홀로파산학교 / 가정재무학교
민생복지 상담학교

'나홀로파산학교'는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에게 '개인파산면책제도 이해, 채무소송대응, 불법추심대응,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교육한다. '가정재무학교'는 금융피해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경제이해, 노년경제이해, 금융이해'를 교육한다.

(금융이해 또는 금융문해 교육)
금융기관 알기 / 금융기관 이용

금융폐해 예방 / 보이스피싱 폐해예방 등

'민생복지상담학교'는 지역 사회복지사 및 민생.복지 활동가들에게 '사회복지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 생활경제, 생활법률, 노동법' 등을 교육한다.

지역 민생.복지 활동가들이 금융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복지 주민권리를 안내하고 상담하며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과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피해 당사자모임 '새마당'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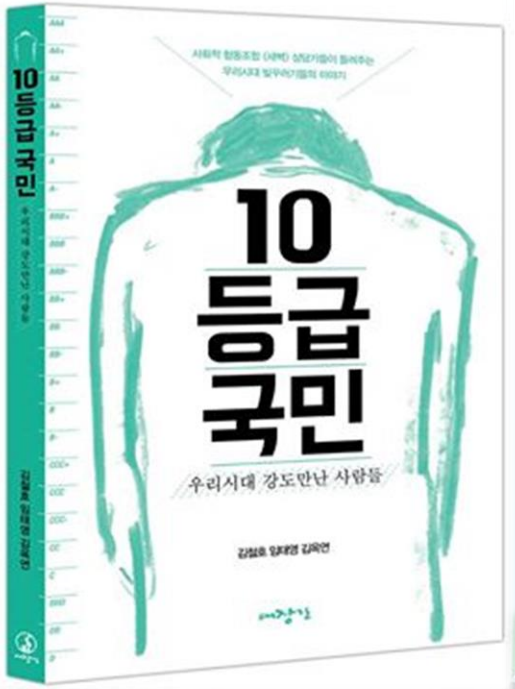
'새벽'은 모든 금융 피해자운동 속에서
'금융피해 당사자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새벽은 금융 피해자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금융피해 당사자조직으로
'새마당'을 설립하였다.

새마당은 '새벽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상담활동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새마당 회원으로

자원봉사자 및 상담활동가들은
'금융피해 당사자로서 능동적이며 채무자 친화적인 상담역량'을 펼쳐냈다.
새벽은 새마당 상담활동가들을 지자체에서 설립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금융상담사'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사례집 발간 :『10등급국민』

새벽과 새마당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10등급국민』이라는 금융피해자 사례집을 출판했다. 『10등급국민』은 '이 땅 빚꾸러기들의 고난과 절망의 육성을 들려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었다. 실제로 21세기 한국사회는 '채권자들의 고함소리만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10등급국민』은 '이제, 이 땅의 금융피해자들이 외치게 하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발걸음이다.



협동조합 활동

한국정부는 2012년에 까다롭고 복잡했던 협동조합제도를 재정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저소득.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창업 동아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새벽은 금융피해 당사자들과 활동가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협동조합 창업활동을 벌여왔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활동

전국연대는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및 금융채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모인 전국연대조직이다. 전국연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투기금융 자본들의 불법영업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국연대는 해마다 11월 21일(IMF 외환위기의 날)에 전국의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여럿이 함께 '금융피해 당사자 목소리내기' 한마당을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또 전국연대는 필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하여'관련 법.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 금융소비자 및 금융피해자 상담, 교육, 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대부업 피해방지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그리고 법제정.개정 활동을 펼쳐 왔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단체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 민생경제연구소 /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 / 홈리스행동

4. 금융채무 문제 해결을 돕는 공공지원기관

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009년 한국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중앙지부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를 설치했다. 현재는'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8개 지방법원 관할지역'모든 곳에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월 소득 265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매년 15,000여건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다.

소송구조 변호사

한국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소송구조 변호사제도를 운용한다. 소송구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60세 이상노인, 기준중위소득 75%미만인 사람'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들은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금융복지상담센터

2013년 7월 서울시는'금융복지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전국 최초로'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현재에 이르러는 전국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상담센터는 금융 취약계층 주민들에게'금융·법률·복지를 결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내용은'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 금융복지교육, 자치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등이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2016년 9월 한국정부는'서민금융생활 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역 지자체마다'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원센터는'서민금융 종합플랫폼으로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등 서민들의 생활금융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또 지원센터는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또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와 연계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개인회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채권자연합체)는 사적 채무조정 업무로써'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생법원

2017년 3월 한국법원은 전국최초로'서울회생법원'을 개원했다. 이후 2023년에는'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대전, 대구, 광주에 새로운 회생법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과중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채무자 친화적인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판결을 결정' 한다. 채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여러 가지 소송제도와 규칙들을 개선'하였다. 그러므로'채무자들의 새로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회생법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변호사회')는 개인파산.개인회생 공익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권추심, 소멸시효, 채무자 대리인제도, 그 밖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호사회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며 사회통념을 바꿔서'금융채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이 박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도전을 선물하는'새로운 출발 ,패자부활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한국사회.경제 속에서 금융피해자 운동의 한계와 과제

'새벽'의 금융피해자 상담 및 교육활동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부분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새벽의 활동은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 이후로도 이전의 활동역량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전국 광역지자체 모든 곳에서'지자체가 설립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보증채권사)이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 센터들'이 설립되었다.

'새마당'활동역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대부분 축소되었다. 나아가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두 번째 파산상황에 이른 회원들'도 생겨났다. 어떤 회원들은'개인파산면책을 통한 새 출발에서 실패' 한 후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지기도 했다. 또 한편 탄핵당한 한국의 윤석열정부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국가예산을 100% 삭감했다. 그 바람에 지난 3년여 사이에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도산했다. 이제 새 정부에서 다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예산을 복원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전국연대'활동도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대부분 축소되었다. 전국연대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집회와 시위도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는 SNS 카카오톡(Kakao Talk) 모임방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소식을 주고받는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새벽과 새마당 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채무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기관들은'금융피해자 운동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지자체 및 정부 공공지원기관들의 채무탕감 정책들은 한국사회.경제에서'도덕적 해이'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본 발표자는 오롯이'금융피해자 당사자운동'만이 한국사회의'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헤치고'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6. 새로운 소통과 참여와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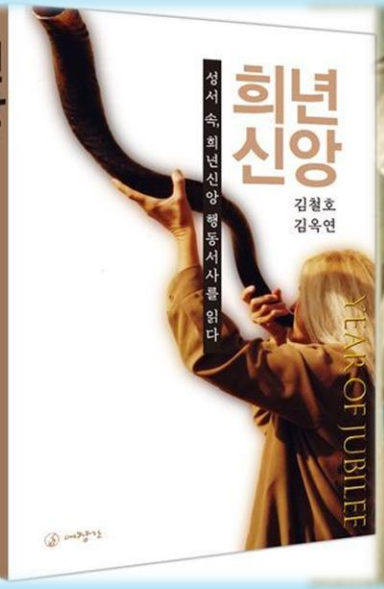
희년빚탕감상담소 & 희년경제연구소 무엇을 하는가?

발표자는 2023년 4월 대전에서 '새벽' 활동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이주하여 새롭게 '희년빚탕감상담소 & 희년경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희년빚탕감상담소(이하 '희년')**는**

벼랑 끝'금융피해자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을 통한 완전한 빚 탕감을 지원한다.

빚과 관련한 모든 생활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또'희년'은 금융피해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권리 찾기와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나아가 희년은 금융피해자들에게 21세기 금융자본주의 대안 경제로써'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희년’은 희년기금(고엘 גואל기금)을 운용한다.

①희년기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변제금액을 연체함으로써 개인회생 폐지 위기를 맞는 채무자들에게 미납 변제금액을 지원한다.

②천만원미만 소액채무로 인해 고통 받으며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어려운 청년채무자’에게 원금 감면 채무조정을 실행한 후 그 조정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③법원이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파산 관재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희년’은 모든 지원 대상자들에게 ‘심층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층채무상담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자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전혀 형편이 안 되는 금융채무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희년경제연구소는

21세기 희년경제(禧年經濟)실천행동 및 희년경제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희년신앙(禧年信仰)에 걸맞은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로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교육한다.

기독교회 또는 기독교 NGO들과의 소통 . 참여 . 연대

'희년'은 한국 기독교회 및 기독교NGO들과 '희년빚탕감운동' 내용을 소통하고 참여와 연대를 위해 힘쓴다. 아울러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교우들을 만난다. 교우들의 빚 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희년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연동교회 '게일홀'에서 매주 화.목요일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한다.

또 '희년'은 인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내일의 집'에서 매주 수요일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한다. 금융피해자들이 '내일의 집의 다양한 활동'(쉼터, 자활사업, 협동조합 활동)과 연계해서 도움을 얻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기독교 NGO인 '희년사회적협동조합' 사업들과 연계해서 금융피해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비 커먼즈(commons)활동

'희년'은 충남 천안 농촌마을에 있는 **단비교회**에서 '단비 커먼즈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희년은 '단비 커먼즈 활동'을 통해서 금융피해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새로운 삶'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희년은 단비 커먼즈의 정체성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한다.

사유화 포기 원칙 : '법적인 사유재산권 또는 개인소유 욕망'을 포기한다.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필요와 쓰임에 따라 사용하고 누리는 삶의 경험을 쌓는다.

민주주의 원칙 :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한다.

원시 공산사회 원칙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양하고 새로운 모든 형태의 활동과 노동을 존중한다. 서로서로의 능력에 따라 활동(노동)하고 쓰임과 필요에 따라 나눈다.

사회적 상속 운동 : 누구에게나 21세기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체제 속에서 쌓아온 부와 자산을 '무한독점유산(遺産)으로 상속하는 것'은 죄악이다. 따라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부와 자산만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풀뿌리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때 부와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생태.문화예술 활동들과 경험들'도 함께 상속한다.

단비 커먼즈의 활동내용들

①생명농업(농업법인 '다함원') : 유기농업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 먹거리를 생산한다.

②돌봄 커먼즈(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통합 돌봄)을 통하여 '지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한다.

③쉼과 영성 커먼즈(경청'敬聽'의 집) : 종교적 기도와 영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친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제공한다.

④문화.예술 커먼즈(마을사회적협동조합) : 마을주민들과 방문자들이 함께 '음악, 미술, 공예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을 아시아로~

'희년'은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경험과 성과들'을 아시아 국가들의 민생복지 상담활동가들과 공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먼저 '희년'은 아시아 기독교단체(YMCA 등)와 함께 희년빚탕감운동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려고 한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민생복지 상담활동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경험과 성과들을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인파산면책 법 제정 및 금융피해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사회경제 운동으로써 금융피해자 운동 비전(vision)을 증언'할 수 있다.

주제2 - 채무자조직 지원 및 사회적 수용에 관한 주제

희년빚탕감상담소(禧年債務蕩減相談所) 소장 김철호 목사

1.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한국 IMF 외환위기와 폐해

한국사회에서 금융피해자운동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태동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21세기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외환위기로부터 출발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일자리와 집과 소유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 앉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용카드와 대출 등 금융 채무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 그렇게 수많은 금융채무자들이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렸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한국의 민생.노동.인권 활동가들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소외계층의 금융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빚 탕감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사회.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한국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자본들에게 한국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는 '21세기 지구촌 금융화 체계'속으로 편입되었다. 21세기 한국의 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유사자본가'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당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실제로 2024년 12월말 한국의 경제 활동인구(약2800만)가운데 1,432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였다. 그 중에 1,410만명(99.1%)이 개인투자자다. 더불어 코인(가상화폐)투자자수는 '적게 잡아 7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특수고용, 프리랜

서,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수도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상생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21세기 한국인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21세기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하루하루의 모든 쓰임과 필요를 오롯이 금융시스템에 의지하거나 관리하도록' 내맡긴다. 이렇듯이 지구촌 나라들마다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크고 넓게 그 터를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21세기 금융화이야말로 중세유럽의 고리대금업과 약탈경제로의 회귀'라고 개탄한다. 또 영국의 경제지리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는 '21세기 지구촌은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증언한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

'빚진 죄인'을 거부하다.

'희년빚탕감상담소'(禧年債務蕩減相談所 이하 '희년')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넘게 한국사회에서 '빚진 죄인, 참이 아니다'라고 외쳐왔다. 희년빚탕감운동(禧年債務蕩減運動)을 통하여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경제인식'을 거부해 왔다.

이렇듯이 희년의 '빚진 죄인 거부운동'의 밑바탕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지구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빚진 죄인'자체를 거부한다. 너나없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낸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증언'

21세기 지구촌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시대상황에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은 '법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법원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법률'을 근거로 '빚진 죄인을 거부'한다. 한국법원은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금융채무자의 삶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심리(審理)'한다. 한국법원은 금융채무자들의 생활경제 파산상태를 확인한 후 '파산 및 면책을 선

고’한다.

한국법원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누계(년/명)

년도	2003	2007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파산	3,856	154,039	50,379	49,063	41,463	41,239	40,104
개인회생	0	51,416	86,551	81,030	89,966	121,017	129,498
합계	3,856	205,455	136,930	130,093	131,429	162,256	169,60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21세기 금융시스템의 증언’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증언은 ‘21세기 금융시스템’을 통해서도 외쳐진다.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의 실체는 다음과 같이 ‘숫자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24년 12월말 본원통화(현금통화182.67조+은행시재금+지급준비예치금)283.48조원이 × 통화승수 약14.675배의 속도로 돌고 돌아서 = 신용통화(빚)4,160.35조원을 만들었다.”

이처럼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 속에서 ‘모든 돈 또는 부와 자산들’은 누군가의 ‘빚’이다. 이 빚을 숫자로 표현하면 **‘2024년 12월말 가계부채 1,927,3조 + 자영업자부채 1,123.8조 = 실제 가계부채 3051.1조원’**이다.

이때 모든 빚(돈)은 ‘이자와 이윤을 통해서’ 돌고 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은행은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화폐’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사회.경제 속에서 모든 부와 자산들은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 화폐를 이자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독점하고 쌓은 것’이다. 한마디로 21세기 한국 금융시스템 속에서 모든 금융채무자들은 ‘금융피해자’다.

3. 한국 금융피해자 운동의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새벽(이하 ‘새벽’) **활동**

'새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광역도시 가운데 하나인 '대전'에서 금융피해자 운동을 시작했다. 새벽은 '금융피해 당사자와 활동가 그리고 법률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는 연대조직이다. **새벽**은 '개인파산면책은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라는 모토(motto)로 활동한다.

통합상담 활동 : 민생(民生)을 협동(協同)하다.

새벽은 금융피해자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한다 (채무종합상담 → 서류발급안내 → 법원소송서류 만들기 → 법원소송접수→ 파산면책결정까지)

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단체들과의 소통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피해 당사자에게 맞는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복지권리 찾기'를 안내한다.

나아가 '금융채무와 관련한 모든 생활법률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더해서 '21세기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폐해'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교육활동 : 나홀로파산학교 / 가정재무학교 / 민생복지 상담학교

'나홀로파산학교'는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에게 '개인파산면책제도 이해, 채무소송대응, 불법추심대응,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교육한다. '가정재무학교'는 금융피해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경제이해, 노년경제이해, 금융이해'를 교육한다.

(금융이해 : 금융기관 알기/금융기관 이용/금융폐해 예방/보이스피싱 폐해예방 등)

'민생복지상담학교'는 지역 사회복지사 및 민생.복지 활동가들에게 '사회복지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 생활경제, 생활법률, 노동법' 등을 교육한다. 지역 민생.복지 활동가들이 금융피해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민생.복지 주민권리를 안내하고 상담하며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과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피해 당사자모임 '새마당' 활동

'새벽'은 모든 금융 피해자운동 속에서 '금융피해 당사자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새벽은 금융 피해자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금융피해 당사자조직으로 '새마당'을 설립하

였다. 새마당은 '새벽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상담활동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새마당 회원으로 자원봉사자 및 상담활동가들은 '금융피해 당사자로써 능동적이며 채무자 친화적인 상담역량'을 펼쳐냈다. 새벽은 새마당 상담활동가들을 지자체에서 설립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금융상담사'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사례집 발간 :『10등급국민』

새벽과 새마당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10등급국민』이라는 금융피해자 사례집을 출판했다.『10등급국민』은 '이 땅 빚꾸러기들의 고난과 절망의 육성을 들려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었다. 실제로 21세기 한국사회는 '채권자들의 고함소리만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10등급국민』은 '이제, 이 땅의 금융피해자들이 외치게 하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발걸음이다.

협동조합 활동

한국정부는 2012년에 까다롭고 복잡했던 협동조합제도를 재정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저소득.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창업 동아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새벽은 금융피해 당사자들과 활동가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협동조합 창업활동을 벌여왔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활동**

전국연대는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및 금융채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모인 전국연대조직이다. 전국연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투기금융 자본들의 불법영업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국연대는 해마다 11월 21일(IMF 외환위기의 날)에 전국의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1

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여럿이 함께 '금융피해 당사자 목소리내기' 한마당을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또한 전국연대는 필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하여 '관련 법.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 금융소비자 및 금융피해자 상담, 교육, 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대부업 피해방지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그리고 법제정.개정 활동을 펼쳐 왔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단체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 민생경제연구소 /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 / 홈리스행동

4. 금융채무 문제 해결을 돕는 공공지원기관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009년 한국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중앙지부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다. 현재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8개 지방법원 관할지역' 모든 곳에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월 소득 265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매년 15,000여건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다.

소송구조 변호사

한국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소송구조 변호사제도를 운용한다. 소송구조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60세 이상노인, 기준중위소득 75%미만인 사람' 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들은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2013년 7월 서울시는 '금융복지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전국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현재에 이르러는 전국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금융·법률·복지를 결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내용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 금융복지교육, 자치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등이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2016년 9월 한국정부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역 지자체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으로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들의 생활금융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또 지원센터는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또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와 연계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개인회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신용회복위원회'(채권자연합체)는 사적채무조정 업무로써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생법원

2017년 3월 한국법원은 전국최초로 '서울회생법원'을 개원했다. 이후 2023년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 새로운 회생법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과중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채무자 친화적인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판결을 결정'한다. 채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송제도와 규칙들을 개선'해 왔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들의 새로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회생법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개인파산.개인회생 공익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권추심, 소멸시효, 채무자 대리인제도, 그 밖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호사회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며 사회통념을 바꿔서 '금융채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이 박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도전을 선물하는 '새로운 출발 패자부활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한국사회.경제 속에서 '금융피해자 운동의 한계와 과제'

'새벽'의 금융피해자 상담 및 교육활동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부분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새벽의 활동은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된 이후로도 이전의 활동역량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전국 광역 지자체 모든 곳에서 '지자체가 설립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보증채권사)이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들'이 설립되었다.

새마당 활동역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대부분 축소되었다. 나아가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두 번째 파산상황에 이른 회원들'도 생겨났다. 어떤 회원들은 '개인파산면책을 통한 새 출발에서 실패'한 후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국연대 활동도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대부분 축소되었다. 전국연대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와 시위도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는 SNS 카카오톡(Kakao Talk)모임방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소식을 주고받는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벽과 새마당 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유채무해결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기관들은 '금융피해자 운동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지자체 및 정부 공공지원기관들의 채무탕감 정책들은 한국사회.경제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본 발표자는 오롯이 '금융피해자 당사자운동'만이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

난을 헤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6. 새로운 소통과 참여와 연대

희년빚탕감상담소 & 희년경제연구소 무엇을 하는가?

발표자는 2023년 4월 대전에서 '새벽' 활동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이주하여 새롭게 '희년빚탕감상담소 & 희년경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희년빚탕감상담소(이하 '희년')**는**

벼랑 끝 '금융피해자들'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을 통한 완전한 빚 탕감을 지원한다. 빚과 관련한 모든 생활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또 '희년'은 금융피해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권리 찾기와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나아가 희년은 금융피해자들에게 21세기 금융자본주의 대안 경제로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희년'은 희년기금(고엘 גואל 기금)을 운용한다.

①희년기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변제금액을 연체함으로써 개인회생폐지 위기를 맞는 채무자들에게 미납 변제금액을 지원한다.

②천만원미만 소액채무로 인해 고통 받으며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어려운 청년채무자'에게 원금 감면 채무조정을 실행한 후 그 조정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③법원이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파산 관재인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희년'은 모든 지원 대상자들에게 '심층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층채무상담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자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전혀 형편이 안 되는 금융채무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희년경제연구소는

21세기 희년경제(禧年經濟)실천행동 및 희년경제 영성(靈性 Sprituality)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희년신앙(禧年信仰)에 걸맞은 하나님나라 대안 경제로써 '협동조합 및 사

회적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한다.

기독교회 또는 기독교 NGO들과의 소통 . 참여 . 연대

'희년'은 한국 기독교회 및 기독교NGO들과 '희년빚탕감운동' 내용을 소통하고 참여와 연대를 위해 힘쓴다. 아울러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교우들을 만난다. 교우들의 빚 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희년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연동교회 '게일홀'에서 매주 화.목요일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한다.
또 '희년'은 인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내일의 집'에서 매주 수요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한다. 금융피해자들이 '내일의 집의 다양한 활동'(쉼터, 자활사업, 협동조합 활동)과 연계해서 도움을 얻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기독교 NGO인 '희년사회적협동조합' 사업들과 연계해서 금융피해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비 커먼즈(commons)활동

'희년'은 충남 천안 농촌마을에 있는 **단비교회**에서 '단비 커먼즈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희년은 '단비 커먼즈 활동'을 통해서 금융피해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새로운 삶'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희년은 단비 커먼즈의 정체성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한다.

사유화 포기 원칙 : '법적인 사유재산권 또는 개인소유 욕망'을 포기한다.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필요와 쓰임에 따라 사용하고 누리는 삶의 경험을 쌓는다.
민주주의 원칙 :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한다.
원시 공산사회 원칙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양하고 새로운 모든 형태의 활동과 노동을 존중한다. 서로서로의 능력에 따라 활동(노동)하고 쓰임과 필요에 따라 나눈다.

단비 커먼즈의 활동내용들

①생명농업(농업법인 '다함원') : 유기농업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 먹거리를 생산

②돌봄 커먼즈(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통합 돌봄)을 통하여 '지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

③쉼과 영성 커먼즈(경청'敬聽'의 집) : 종교적 기도와 영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친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제공

④문화.예술 커먼즈(마을사회적협동조합) : 마을주민들과 방문자들이 함께 '음악, 미술, 공예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림

사회적 상속 운동

누구에게나 21세기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체제 속에서 쌓아온 부와 자산을 '무한독점유산(遺産)으로 상속하는 것'은 죄악이다.

따라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부와 자산만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풀뿌리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때 부와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생태.문화예술 활동들과 경험들'도 함께 상속한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을 아시아로~

'희년'은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경험과 성과들'을 아시아 국가들의 민생복지 상담활동가들과 공유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먼저 '희년'은 아시아 기독교단체(YMCA 등)와 함께 '희년빚탕감운동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려고 한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민생복지 상담활동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운동경험과 성과들을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인파산면책 법제정 및 금융피해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사회경제 운동으로써 금융피해자 운동 비전(vision)을 증언'할 수 있다.